

#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미숙 · 장화경 · 홍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공회대학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혁신으로 산업사회의 구조적 환경이 변화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학교와 직장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생활 모든 부문에서 컴퓨터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다. 2005년 현재 인터넷 이용율은 '05년 현재 전 국민의 71.9%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휴대폰 가입자수는 '04년 현재 3천7백만명 이상이 되고 있다(통계청, 2005).

정보화는 개인 및 가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보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있다. 인터넷 중독 등으로 개인이 갖고의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파괴하거나 무분별한 정보 유입으로 인한 가족 위계구조의 전환, 가족공간개념의 파괴 등 부정적인 면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정보 공유로 인한 가족성원간 유대 강화, 평등구조의 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박부진, 2000). 최근에는 정보화가 가족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중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관심이 경주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다양한 사회제도로 이관되고, 가족은 노인 및 아동보호, 지위부여,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자녀의 사회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정보사회에서 가족기능이 확대될 것인지 혹은 축소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아버지 상인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새로운 상징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친밀감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부모자녀 관계 또한 친밀해질 가능성과 소원해질 가능성이 공존한다. 가족성원보다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 가족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가족성원이 개별적으로 행동원칙과 시간대를 가짐으로써 가족의 개별화가 가속화되면 가족관계는 멀어질 것이다. 반면, 정보화 기기의 발달이 가족성원들이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 가족간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다. 가족성원들은 가족매체와 개인매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즐기면서도 긴급할 때에는 가족성원들과의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형 가족이 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규명하고 정보화 시대에 가족관계를 돈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족의 파편화, 가족성원의 컴퓨터 중독, 정보화로 인한 가족해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고, 가족 내의 인간관계의 원자화, 고립화 등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가족집단 내부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 II. 정보화로 인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 1. 가족의 정서적 기능

가족은 기본적으로 애정과 경제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회제도이다. 가족은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직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직장에서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정에서 편안한 휴식을 얻으려는 욕구는 상승한다. 가족은 '안식처'로서 공적 사회생활과 이해관계에서 분리된 사적 공간이고 사생활의 영역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기든스(1996)에 의하면, 과거의 가족은 제도적 성격이 강했으나 오늘날의 가족은 우애적 성격이 중요한 기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친밀성이 강조되고 있다. 친밀성이란 사람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타자와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가족은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의 복합체인데, 그 중에서 정서적 토대는 가족관계의 형성 및 유지의 기초요인이 된다.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가족의 복지적 기능의 출발점이다. 애정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개인을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개인적 성장 및 성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정서적 연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성원을 충원해 주고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기능이 수행되는 최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정서의 측면도 공존한다. 가족은 양면성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화합과 갈등, 자율과 의존, 애정과 권위, 휴식과 노동, 사랑과 증오, 개성 존중의 자유와 결속, 협동을 유지하기 위한 구속 등의 대립적 감정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이러한 복합성이 가족생활의 현장에서 항시적으로 표출된다.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화합으로 행복이 가득한 가족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증오와 갈등이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고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5).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 조사보고서」(2004)에 의하면, 가족의 정서적 기능으로서 양육과 보호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1일 24시간을 단위로 하여 가족을 보살피는 평균시간은 남성이 10분, 여성이 42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sup>1)</sup>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기대수준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역할 수행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역할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를 돌보는 행동을 보면 남성은 1분, 여성은 3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부모나 조부모, 그 밖의 다른 가족성원을 돌보는 행위도 불과 1~2분이었다. 개별가족의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수행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서구 사회의 경우는 부부간의 우애적 관계가 가족형성의 유일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국 가족에서는 가족관계의 정서적 유대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서 '제도가족'의 특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가족문제가 있더라도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에게는 부양자 및 아버지의 역할기대가 부부간의 사랑이나 성생활에 대한 기대보다 우선하고, 아내에게는 가사책임자이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우선시되고 있다(김

1) 통계청(2004), 『국민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세 이상 취업자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하루에 각 항목에 할애한 평균시간을 측정한 통계자료이다.

승권 외, 2000). 이는 부부의 사랑이나 정서적 유대, 성생활의 만족이 중요시되는 서구의 가족과는 구별되는 한국 가족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도 세대에 따라 변화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가족관계의 중심축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변화되는 현상은 자녀세대의 거주 및 경제적 독립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으로 결속되어 있던 부모-자녀관계가 소원해지고 여성이 자신의 희생대가를 남편으로부터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박부진, 1994). 핵가족이 정착되면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기능이 중요시되고 부부관계에서 고정적 성역할분업의 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남성이 독점적 경제 생산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은 생산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구성원들을 보살피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부장적 부부관계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우애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애적 관계의 지향은 부부의 인격적 만남과 정서적 안정을 강화시키는 반면, 가족과 결혼의 안정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조형, 1992).

부부의 관계유형은 가족집단 및 사회조직과 전체 사회구조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부부중심가족의 특징을 가족집단의 내/외적 관계로 구분하여 볼 때, 가족 내부적으로 가족기능의 축소화 가족결합의 약화, 가족성원의 생활상의 개별화, 가족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관심과 생활태도의 차이 등이 개성화와 함께 나타난다. 가족 내부에서도 상대방이 기대하는 역할과 실제의 역할 수행이 다른 경우에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한다. 가족 외적으로는 우선 가족성립 조건의 불안정성을 지적할 수 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전통가족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녀가 결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결혼이 당사자들의 개인적 관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족의 불안정도는 상승한다. 또한 개별가족이 주위의 친족이나 친지의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제도적·관습적 감시나 감독과 원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가족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체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장소인 가정 내부의 가족관계가 개인에게 안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2.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컴퓨터가 멀티미디어 기계로 전환되고 통신기술과 접합하여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였고 사무기기 및 교육기자재로 보급되면서 더 나아가 가정기기로도 확산되었다. 통신망의 발달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의 활용은 일상적 행위로 정착되어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용도에도 확장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 인터넷의 사용실태를 보면 인터넷의 이용목적에서 여성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 채팅과 메신저, 동호회 등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이용률이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세 미만층에서 이러한 추세가 가장 뚜렷한 편이다. 인터넷의 이용이 높지 않은 40대 여성들의 경우도 채팅, 메신저나 동호회의 가입이 남성보다 더 많은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이종구 외, 2005).

정보화는 전통적인 가족성원간의 공간개념을 변화시키고 가족 내부의 상호작용의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가족들과 같은 공간 속에 있는 시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족 외부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가상공간 속에서 실제의 가족과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는 가족성원들이 동일한 거주공간에서 생활단위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더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이 대중화되면서 가족성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가족성원간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소한 정보조차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면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의 범위는 축소된다(문숙재 외, 2003).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정보화가 가족생활과 같은 전통적 유대를 약화시키게 되고 가족의 안정감이나 소속감의 결여로 인해 심리적 소외, 무기력, 무의미함에 빠지는 가족성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조정문 외, 1999).

또한 정보화로 공간성과 시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신망의 확산과 활용이 통신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야기하면서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기기의 대중적 보급이 확산되면서 정보사회가 가족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든스는 정보화로 새로운 유형의 인성이 출현하게 되면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생산활동에서 구속시간이 경감된 남성이 가족과 더불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적이고 섬세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새로운 남성성이 이상적인 인성으로 부각되어지면, 친밀성의 공간인 가족 내의 인간관계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기든스, 1992). 정보사회의 등장은 노동시장의 구조 및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가족관계 및 친밀성의 구조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정보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고 선도함으로써 가족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이미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 익명성, 사회관계, 생활의 변화, 사이버문화의 전파,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였다(김승권, 200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과 더 쉽게 사귀다는 경우(3.85점), 새로운 사람들과 더 쉽게 사귀다는 경우(3.66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3.5점대의 응답으로는 대화의 기회를 늘림, 사귀는 사람의 폭을 넓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됨 등이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친구관계가 3.4점대의 점수로 사회관계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가족관계는 2.91의 점수를 보여 인터넷을 이용한 후 가족관계가 다소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유형이 가족영역에 과급되면 가족생활 속에서도 가족구성원의 개성과 자유,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향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가족이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남성 가장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방식은 감소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 개인들의 연결망의 형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가족'이라고 명명한 연구도 있다(조정문 외, 1999). '네트워크가족'에서는 비대면성, 개별성,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의사소통이 증대되면서, 높은 응집력과 몰입의 유지보다는 느슨한 관계망적 성격의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네트워크가족'에서는 가족의 제도적인 구속력이 약한 대신 개인의 자율이 보장된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성역할의 경직된 경계는 유연화되고 역할공유 현상이 확산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가사 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간의 상호 독립성과 각자의 자율적 판단이 강조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사회에서는 가족에 속해 있는 개인이 개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 원활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

이 가족의 과제라고 보았다.<sup>2)</sup>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입장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보화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보고가 먼저 등장하였다.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논의에서는 인터넷 중독<sup>3)</sup> 등으로 가족의 생활시간대를 바꾸고 무분별한 정보 유입으로 가족의 위계구조의 동요, 가족의 물리적 공간개념의 파괴 등 정보화의 역기능현상이 지적되었다. 가족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사이버공간과 개인통신을 통한 개별적 인간관계를 확대하면서 가족 이외의 친밀한 타인을 경험하게 되어 '가족 속의 개인화 현상'인 개별화가 심화되고 가족집단의 응집성이 침해되어 가족관계는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재경(1992)은 「가정 정보화와 성별분업」 연구에서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가사노동이 경감되어 모든 가족성원이 가사분담에 참여하게 되지만, 한편 기계화나 자동화되기 어려운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발전이 오히려 성별분업을 심화하고 여성지위를 하락시킨 것과 동일한 요인인 성차별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함인희(1996)는 통신기기를 사용한 후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가족관계가 소원해졌고, 직접적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졌으며, 가족 단위의 여가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통제 및 간섭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화된 인간관계가 확산되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고민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온라인상에서 대화 상대를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세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대화의 소재에 공통성이 적어서 갈등적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대화 단절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박부진(2000)은 정보화로 인해서 가족생활에 있어서 가족성원의 고립화, 정보기술 습득수준에 따른 위계질서의 재편성, 평등지향적 가족의 형성, 가족간의 유대감 변화, 의사소통양상의 이중구조, 상호작용의 감소, 세대관계의 변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이 초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현아(2000)도 정보화가 가족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세대관계의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 정보통신을 통해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친밀감이 더욱 증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화를 통한 정보통신기기의 대중적 보급이 대면관계 이외의 통신상의 접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족구성원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sup>4)</sup>. 가정생활에서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세는 가정과 직장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

2)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의 사회적 비중이 커서 혈연주의, 가족이기주의 및 가족배타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보화가 가족 내부의 개방성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개방성과 몰입성 간의 균형잡힌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전망도 제시되었다(조정문 외, 1999)

3)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이란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용어사전, terms.naver.com)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10월에 인터넷중독정보센터([www.cyadic.or.kr](http://www.cyadic.or.kr))를 개설하였고, 2003년에는 인터넷중독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 프로그램'(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내성,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japc.or.kr](http://www.japc.or.kr))를 개설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상담, 사이버전문치료센터, 인터넷쉼터학교,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로 인해 개인은 더욱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이 가족의 네트워크와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긍정적 측면의 잠재적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전자의사소통방식인 전자메일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이용자들 사이에 전자메시지 형태의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박부진과 이해영(2000)은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가족생활의 변화' 연구에서 가족생활의 변화유형으로 가족으로부터의 고립화, 의사소통 양상의 변화, 생활시간주기의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의 감소, 부모세대를 교육하는 자녀세대<sup>5)</sup>, 인터넷 이용에서의 성차별 감소 경향과 가족집단 내의 성차별 감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터넷 세대에 대한 부모 역할의 상실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생활화는 가족문화에 있어서 상반적인 경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이용은 이용자들의 인터넷을 통해 외부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가족성원들의 응집을 저해하는 반면, 가족성원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적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가족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영숙(1998)은 정보화가 가족 및 여성에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소외감 증가,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 증가, 사무자동화로 인한 실직, 비정규직화, 성의 상품화, 기술지체현상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동시에, 양성평등의 증진, 역할구분의 감소,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 감소, 여성취업의 증진, 단순반복적 업무의 감소, 승진기회의 증가 등도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견해에서는 정보화를 통해 가족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가족성원간의 유대 강화, 평등구조 형성 등의 현상을 높게 평가한다. 서울과 경기지방의 인터넷 사용자 841명을 조사한 이해영과 이여봉의 연구(2001)에서는 이메일의 활용과 가족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터넷 전반이 가족 및 사회로부터 개인을 유리시키는 경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은 즉시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또한 감정교류의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메일 교환이 가장 빈번한 가족관계는 형제자매이고, 부부간에도 이메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가족의 경우에 이메일은 가족이나 친지 등의 사적인 인간관계의 유대강화 및 이해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전자언어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부부 및 세대간 단절을 완화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개선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메일이나 휴대폰의 문자기능 등이 사회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물리적 거리감을 없애주고 심리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일상적 통신기기로 정착하게 되면서, 전자의사소통이 대면적인 관계보다 좀 더 솔직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이점도 있다(문숙재 외, 2003). 비대면적 의사소통 방식이 직접적 대면관

4) 미국에서 2000년 3월 353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66%가 이메일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분이 두터워졌고, 60%가 인터넷 이용 이전보다 친구와의 교류가 증진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회생활이 비이용자보다 더 활기차고 이메일 이용이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켰다고 한다(Princeton University 2000, 김승권 외, 2002 재인용).

5)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인터넷을 가르치게 된 현상'은 자녀세대에게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모세대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다른 가족성원에게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관해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2.3%인 154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준 대상은 부모 61%, 형이나 언니 23.4%, 동생 33.1%였다. 이러한 교육방향의 역조현상은 기존의 고정적 위계구조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여 가족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위계구조인 부모-자녀관계가 컴퓨터 이용방법의 학습을 매개로 하여 상호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측면도 있다(박부진, 이해영, 2000).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기술수준에 따라 가족간의 위계질서가 재편되는 일면으로 볼 수 있는데, 소위 '아날로그 세대'인 부모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소외의식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문숙재 외, 2003).

계에서 표출되기 쉬운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질적인 수준이 높은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상호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미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연구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재경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노동의 경감</li> <li>가족구성원의 가사분담 가능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화, 자동화 어려운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부담</li> <li>성별분업의 심화</li> <li>여성 지위의 하락</li> </ul>
함인희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 소원</li> <li>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짐</li> <li>여가시간이 줄어들음</li> </ul>
서영숙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평등 증진, 역할구분 감소</li> <li>여성의 자녀양육 부담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성원 간 소외감 증가</li> <li>통신비 증가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li> </ul>
조정문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 가장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 감소</li> <li>가족구성원 모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li> <li>성역할유연화 및 공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증가)</li> <li>부모-자녀간 독립성 및 자율성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의 안정감 및 소속감 결여로 심리적 소외, 무기력, 무의미함 초래</li> <li>느슨한 가족관계망 형성</li> </ul>
박부진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등지향적 가족구조 형성</li> <li>가족간의 유대감 변화</li> <li>세대관계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성원 고립화</li> <li>새로운 위계질서의 조성</li> <li>의사소통양상의 이중구조</li> <li>가족간 상호작용 감소</li> <li>공동체 의식 약화</li> </ul>
이현아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변화</li> <li>성역할 변화</li> <li>세대관계 변화</li> </ul>	-
박부진, 이해영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이용에서의 성차별 감소</li> <li>가족 내 성차별 감소에 대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으로부터의 고립화</li> <li>의사소통 양상의 변화</li> <li>생활시간주기의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 감소</li> <li>부모세대를 교육하는 자녀세대</li> <li>인터넷세대에 대한 부모의 역할상실</li> </ul>
이해영, 이여봉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각적인 의사소통수단, 감정교류의 수단으로 활용됨</li> <li>사적인 인간관계의 유대강화 및 이해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사회로부터 개인을 유리시킴</li> </ul>
문숙재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솔직한 표현사용으로 가족성원간 이해 증진</li> <li>질적인 수준이 높은 표현 사용으로 상호성 신뢰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성원간 상호작용 범위 축소</li> </ul>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정도의 격차가 가족 내에서 세대간의 대화의 단절이나 소외감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가족성원 개인의 정보의 선택 및 활용 능력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해 사회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의 활용주기가 단축되어 부모세대의 경험을 자녀세대에게 전수할 효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서로 다른 의사소통방식을 경험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정서적 측면의 관계성은 유지되더라도 도구적 의미의 유대감이 약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보화와 가족관계의 친밀도와 위계구조의 변화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이상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성별 평등성이 제고되고, 가족간 친밀도가 증가하리라고 가정하였다.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서 가족성원간의 갈등, 원자화 등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 III. 연구방법

#### 1. 표본과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실태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기기 사용실태와 정보화와 가족관계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기기의 사용 내용과,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례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총 실태조사 대상자는 300명이고, 2006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인터넷을 통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표본풀을 기반으로 확률표본추출을 하여 선정되었다.

가족간 의사소통의 정보화 유형별 면대면 사례조사(Face-to-Face Interview)는 가족을 정보화 활용수단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재 적극적인 정보화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20가족에 대해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사례대상은 인터넷 가족신문 등을 개설하고 있는 가족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주위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가족간 정보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 2. 측정도구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종속변수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내 문제, 성역할 평등 정도, 가족간 관계의 친밀도 등 5가지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정보와 요인으로 이는 정보화 사용능력 수준과 가족간 정보화 사용빈도로 구성된다. 분석에서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수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통제하였다.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측정
종속변수	가족의 정서적 기능	1) 부부관계	부부간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해결 수준	3문항 (5점척도)
		2) 부모자녀관계	부부간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해결 수준	3문항 (5점척도)
		3) 가족내 문제	정보화로 인한 가족내 문제의 정도	6문항 (5점척도)
		4) 성역할평등	가족내 성역할 평등 수준	6문항 (5점척도)
		5) 가족간 관계	가족간 관계의 친밀정도	8문항 (5점척도)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응답자 성	0=남성 1=여성
		연령	응답자 만연령	1=20대 2=30대 3=40대 4=50대이상
		결혼상태	응답자 결혼상태 (부부관계 분석의 경우 제외됨)	0=기혼 1=미혼
		교육수준	응답자 교육수준	1=무학 2=초등졸 3=중졸 4=고졸 5=대졸 6=대학원이상
		월수입	응답자 가구 세금포함 총 월수입	1=100만원미만 2=100-200만원미만 3=200-300만원미만 4=300-400만원미만 5=400-500만원미만 6=500-600만원미만 7=600만원이상
	정보화 요인	정보화 사용능력	컴퓨터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용능력 수준	2문항(5점척도)
		정보기기 사용빈도	가족간 정보화 기기 사용빈도	5문항(5점척도)

#### IV. 분석결과

##### 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총 조사 대상자는 300명이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 50%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가 각 27-28%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상은 18.7%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가장 많은 62.7%를 차지하고 있고, 미혼은 29.3%, 이혼 4.3%, 사별 2.7%, 별거 1.0% 등이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72.7%로 가장 많았고, 고졸 23.3%, 중졸이하는 4.0%에 불과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비교적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월수입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주는 400만원이상으로 30.0%이고, 200~300만원미만 26.7%, 200만원미만 23.3%, 300~400만원미만 20.0%의 순이다. 직업은 무직과 주부가 가장 많은 36.0%이고, 사무직 26.0%, 전문직 13.3%, 판매/서비스직 7.3% 등이다. 거주지는 대도시가 가장 많은 61.7%이고 중소도시 33.7%, 군지역 4.7%의 순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전체	300	100.0
성		
남성	150	50.0
여성	150	50.0
연령		
20-29세	80	26.7
30-39세	80	26.7
40-49세	84	28.0
50세이상	56	18.7
결혼상태		
유배우	188	62.7
별거	3	1.0
사별	8	2.7
이혼	13	4.3
미혼	88	29.3
학력		
중졸이하	12	4.0
고졸	70	23.3
대졸이상	218	72.7
월수입		
200만원미만	70	23.3
200-300만원미만	80	26.7
300-400만원미만	60	20.0
400만원이상	90	30.0
직업		
전문직	40	13.3
사무직	78	26.0
노동근로직	8	2.7
자영업/농어업	31	10.3
판매/서비스직	22	7.3
무직/주부	108	36.0
학생	4	1.3
기타	9	3.0
거주지		
대도시	185	61.7
중소도시	101	33.7
군지역	14	4.7

## 2. 정보화 현황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은 1일 평균 3.32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토요일 3.06시간, 일요일 2.71시간으로 파악되었다(표 4 참조). 즉 주말보다는 평일의 컴퓨터 이용시간이 더 길었다. 성별로는 평일의 경우 남녀 간 차이가 없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성의 사용시간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주말에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과 자녀돌보기 등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평일과 주말 모두에 있어서 20대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가장 긴 4.11~4.41시간이었고, 그 다음은 30대로 나타났다. 50대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연령의 경우 대부분 미혼으로 가족이 있는 고연령자에 비해서 평일과 주말 모두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계층과 달리 평일에 비해서 주말에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긴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4>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단위: 시간)				
특성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계(수)
전체	3.32	3.06	2.71	100.0(300)
성				
남성	3.01	3.14	3.10	100.0(150)
여성	3.14	2.79	2.32	100.0(150)
t	1.113	2.498*	2.647**	
연령				
20대	4.11	4.41	4.26	100.0( 80)
30대	3.49	2.98	2.34	100.0( 80)
40대	3.00	2.41	2.19	100.0( 84)
50대 이상	2.45	2.22	1.80	100.0( 56)
F	4.467**	14.051***	15.797***	
결혼상태				
기혼	3.10	2.34	1.89	100.0(188)
미혼/이혼등	3.85	4.25	4.09	100.0(112)
t	-2.364*	-6.351***	-6.900***	
가족형태				
핵가족	3.44	3.13	2.72	100.0( 12)
확대가족	2.15	2.14	1.82	100.0( 70)
독신/한부모	3.26	3.29	3.29	100.0(218)
F	.187	.101	.068	
교육수준				
중졸이하	1.36	0.93	1.06	100.0( 12)
고졸	2.52	2.51	2.04	100.0( 70)
대졸이상	3.69	3.35	3.02	100.0(218)
F	7.975***	8.311***	6.677***	
월소득				
200만원미만	3.59	3.82	3.49	100.0( 70)
200-300만원	2.74	2.66	2.30	100.0( 80)
300-400만원	3.55	3.15	2.61	100.0( 60)
400만원이상	3.48	2.76	2.53	100.0( 90)
F	1.607	3.555*	3.021*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상태별로는 미혼 및 이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었는데, 특히 주말의 경우 시간 차이가 약 2시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는 차이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이나 핵대가족, 독신 및 한부모가족 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대졸이상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가장 길었고 고졸, 중졸의 순이었다. 대졸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중졸의 3배나 달하고 있다. 월소득별로는 평일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저소득자의 컴퓨터 사용 시간이 가장 긴 반면, 400만원이상 고소득자의 사용시간은 짧은 편이었다.

정보화 현황을 컴퓨터 사용능력과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컴퓨터 사용능력은 보통이 가장 많은 41.3%이고 그 다음은 다소 높은 편으로 34.0%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능력이 낮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응답자의 컴퓨터 사용능력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전체적으로 문자메세지 사용능력이 보통이상인 3.58로 파악되었고, 높은 편과 매우 높음을 합하면 54.7%가 되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문자메세지 사용능력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 컴퓨터와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용 능력

(단위: %, 명)

특성	아주 낮음	다소 낮은편	보통	다소 높은편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컴퓨터	3.3	10.7	41.3	34.0	10.7	100.0(300)	3.38
문자메세지	1.7	9.0	34.7	38.7	16.0	100.0(300)	3.58

다음에는 유형별 및 대상별 정보화 기기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체 가족과 친구간의 정보화 기기 사용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가족 3.17, 친구 및 직장동료 3.92로 가족보다는 친구와 직장동료 간 정보화 기기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대상별 정보화 기기 사용빈도 평균

특성	가족 및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친지
인터넷카페, 개인 홈페이지	2.74	2.95
싸이월드	2.63	2.80
이메일	3.18	3.19
인스턴트 메신저	2.49	2.71
핸드폰 문자메세지	3.71	3.77
전체	3.17	3.92

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빈도 평균이 많음을 의미함.

### 3. 정보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으로 대표되는 정보화로 인해 가족관계의 친밀정도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부관계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1.5%이었고, 부모자녀 관계는 '가까워진 편이다'와 '매우 가까워졌다'를 합하면 50.0%나 된다. 반면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응답은 7.0%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모-자녀간 정보화 격차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생각을 갖기도 함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조부모 및 손자녀간의 관계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72.7%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화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조부모나 손자녀와의 관계도 돈독해졌음을 알 수 있다. 친인척과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로 인해서 직장동료 및 친구관계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까워진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55.7%, '매우 가까워졌다' 12.7%로 합하면 68.4%나 된다. 반면 관계가 '소원해진 편'이라는 응답도 22.7%나 차지하고 있어서 정보화 기기가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면도 있었다.

정보화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가족간 의사소통 및 평등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살펴보았더니, 정보화가 부부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정도, 친밀감,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은 5% 이하의 소수에 불과하였다. 부모-자녀 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향상 55.7%, 친밀감 향상 52.3%, 갈등의 원만한 해결 39.7% 등으로 매우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모자녀 간 평등관계 변화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5.0%를 차지하고 있고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44.0%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화가 부모자녀 간 평등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화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부부간, 부모-자녀간 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 및 친지관계 변화

(단위: %, 명)

구 분	매우 소원해졌다	소원해진 편이다	변화없다	가까워진 편이다	매우 가까워졌다	평균(명)
1. 부부 관계(기혼자만 응답)	0.5	4.8	51.1	37.8	5.9	3.44(188)
2. 부모 자녀 관계	0.3	6.7	43.0	42.0	8.0	3.51(300)
3. 다른 세대(조부모, 손자녀)	1.7	4.7	72.7	20.0	1.0	3.14(300)
4. 친인척 관계	1.0	4.0	61.7	31.0	2.3	3.30(300)
5. 직장동료 및 친구관계	0.7	22.7	28.3	55.7	12.7	3.77(300)

정보화로 인해 초래된 가족문제를 6개 항목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문제는 보통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화가 가족에게 주는 문제는 심각한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항목 중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컴퓨터 사용으로 가족 공유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었고, 그 다음은 가족간 대화시간 감소이었다(표 8 참조).

<표 8> 정보화로 인해 초래된 가족문제

(단위: %, 명)

구 분	거의 없음	없는 편	보통	많은 편	매우 많음	평균(명)
1. 가족성원의 컴퓨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가족간 소외감	11.0	35.3	38.7	14.0	1.0	2.59(300)
2. 통신비 증가로 인한 가족갈등	17.0	34.7	36.7	11.0	0.7	2.44(300)
3. 가족간 대화시간 감소	7.7	29.0	41.7	19.7	2.0	2.79(300)
4. 정보 격차로 인한 세대갈등	9.7	35.3	44.7	8.7	1.7	2.57(300)
5. 남녀 성역할 불평등	17.0	42.3	36.0	4.0	0.7	2.29(300)
6. 컴퓨터 사용으로 가족 공유 여가시간 감소	6.3	25.7	40.0	26.0	2.0	2.92(300)

정보화(정보기기 사용능력과 정보기기 사용빈도)와 가족/친지관계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의 관계가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9 참조). 정보기기 사용능력의 경우 부부관계 .183, 친인척관계 .157, 친구 동료관계 .305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정보기기 사용빈도와 부부관계는 .273, 부모자녀관계 .234, 조손관계 .176, 친인척 관계 .318, 친구 동료관계 .438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정보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친구동료관계, 친인척관계, 부부관계 등의 순으로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단 부모자녀관계, 조손관계는 정보기기 사용능력의 능숙도와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친구 동료관계 정보화 정도와 가장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즉, 관계가 돈독할수록 정보기기를 통한 메시지 전달을 자주하고 또한 능숙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표 9> 가족간 정보화정도와 가족관계 간의 상관성

관계유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조손관계	친인척관계	친구 동료관계
정보기기 사용능력	.183*	.092	.065	.157**	.305***
정보기기 사용빈도	.273***	.234***	.176**	.318***	.438***
사례수	188	300	300	300	300

\* p<.05, \*\* P < .01, \*\*\* P < .001

#### 4.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주는 영향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10 참조). 회귀분석 분석결과 부부관계 모델에서는 정보화 요인 중 정보화 사용빈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어, 가족간 정보화 기기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모델에서도 정보화 사용빈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모

<표 10>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부부관계 (기혼자)		부모-자녀관계		가족내 문제		성역할 평등		가족간 관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5.557		7.262		13.361		6.112		23.986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남성=0)	.153	.054	.508	.126*	.836	.106	-1.637	-.212***	.375	.036
연령	-.138	-.083	.207	.110	.100	.027	.712	.197**	.336	.069
결혼상태(기혼=0)	-	-	-.003	-.003	-.095	-.058	.065	.041	-.198	-.092
교육수준	-.124	-.064	-.099	-.036	.200	.037	.556	.105	.521	.073
월수입	.209	.212**	.046	.036	-.081	-.032	.103	.042	-.152	-.046
정보화 요인										
정보기기 사용능력	.094	.099	.138	.107	.039	.015	-.124	-.050	-.117	-.035
정보기기 사용빈도	.072	.234**	.116	.274***	.050	.060	.138	.170**	.228	.209***
R <sup>2</sup>	.149		.127		.020		.113		.058	
F값	5.287***		6.044***		.869		5.289***		2.591*	
사례수	188		300		300		300		300	

주: 부부 관계 모델은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 중 결혼상태는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음. 정보화 사용능력과 정보화 사용빈도간 상관관계는 .44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변수로 동시에 넣었음. \* p <.05 \*\* p<.01 \*\*\* p<.001

델이 유의하지 않았다. 성역할 평등 모델에서도 가족간 정보화 사용빈도가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남성과 고학력자일수록 가족내 성역할 평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족간 관계의 친밀도에 있어서는 정보화 사용빈도가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어, 가족간 정보기기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가족간 친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5. 사례조사 결과

사례조사 대상자는 총 20개로 정보화 유형별로 나누어서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 이용대상인 7개 사례는 따로 조사하였으며 미니홈피(싸이월드), 핸드폰 사용 대상은 나머지 13개 사례를 가지고 중복으로 조사하였다.

### 1)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 이용사례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곱 가족은 가족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신문에 소개된 기사를 통해 대상자를 찾아 조사하였다(표 11 참조). 이들은 보통 가족홈페이지 운영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자 가족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직접 가족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가족도 있었다.

먼저 이들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가족 수는 평균 4~5명이고 가장의 나이는 30~40대, 학력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고 직업은 회사원, 연구원, 목회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1>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 사례 가족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가족수		4명	4명	4명	3명	4명	5명	6명
연령	부	46세	41세	38세	-	-	-	32세
	모	-	-	-	33세	30대 중반	28세	-
학력	부	대졸	대학원이상	대학원이상	대졸	대졸	고졸	대학원이상
	모	대졸	대졸	고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직업	부	회사원	연구원	목회자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연구원
	모	주부	주부	주부	주부	주부	회사원	주부
자녀	수	2명	2명	2명	1명	2명	1명	1명
	학년	중·고등	초등	초·중	4살	유·초	36개월	태아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를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30~40대의 가장인 아버지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설한지는 보통 1-2년 정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별빛가족'이라는 가족신문을 운영하는 가족의 경우 개설한지 10년 정도가 되었다.

#### ① 가족 홈페이지(가족카페)를 개설동기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 개설 동기를 보면 주로 30-40대의 가장이 가족의 화목과 자녀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유지하고 가족 공통의 재미와 관심사를 갖기 위하여 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홈페이지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표 12 참조).

<표 12>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 개설동기 및 사용시간

사례	개설동기	사용시간 (인터넷/가족홈페이지)
1	10년 전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고 컴퓨터를 더 배우기 원했는데 아이들의 가족신문 만들기 숙제를 하면서 가족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음	3시간/ 1시간
2	가족과 친구들의 대화창구역할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볼 수 있어서 개설함	3시간/ 30분-1시간
3	동생의 소개로 가족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개설하게 됨	2시간/ 30분
4	아빠가 씨넷에 가입해서 가족홈페이지를 만들게 됨	1시간/ 20분
5	아빠가 회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글로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개설함	3시간/ 1-2시간
6	36개월 된 아기사진을 가족홈페이지에 올려서 친척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싸이월드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친척분들이 싸이월드는 이용하지 않아서 씨넷에서 가족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됨	7-9시간(업무)/30분
7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족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음.	1시간/ 10-20분

② 가족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하는 대상과 연락 내용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의 개설이 계기가 되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간에 다시 연결된 경우도 있고, 36개월 된 아기의 사진을 올리기 위해 가족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많은 친척분들과도 가족홈페이지를 공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상대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가 가장 많았고 동거하는 자식, 배우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홈페이지로 가장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상대는 자식, 형제·자매,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의 운영이 부부 간의 관계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홈페이지를 통해 가족 및 친지와 주로 연락하는 내용은 '친구나 가족, 친지에 대해 들은 소식을 전한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미있는 조크나 우스운 얘기 등을 전한다', '자신의 업무관련 내용이나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한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족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 친지 간 안부나 소식을 전하고 가족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신문을 10년간 운영해 온 <사례 1>의 경우는 친인척 관계에서 실제 만나기는 힘들어도 가족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교환하고 가족 행사사진 등을 올림으로써 아이들의 학교 및 일상생활을 소상히 잘 알게 되고 명절, 제사, 생신 등 친지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나도 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큰아버지께서 직접 가족홈페이지에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③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가족홈페이지 개설 후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서로 연락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족과 친지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더욱 솔직해 질 수 있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표현할 수 있다', '가족 성원의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 더 잘 이해



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초·중학교 자녀를 둔 <사례 3> 가족의 경우 가족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되면서 가족간에 서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말로써 하는 것보다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에게 꾸지람보다는 칭찬,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되고 가족 홈페이지에 각자의 방을 꾸며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가족간에 불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대처하던 방법과 가족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사례 5>가족의 경우는 보통 싸우게 되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각자의 일로 바빠서 화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홈페이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세히 글로 남기면 서로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빨리 화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존에는 직접 대화하였으나 가족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서는 격려 차원의 글을 비공개로 남기거나 편지를 보낸다고 하였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나타나는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은 게임이나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미성년자 자녀들이 음란·폭력물에 쉽게 노출되어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점 등이다.

가족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대화시간 증대, 컴퓨터 공유시간 증대,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가족의 최근 근황을 알릴 수 있어 전화연락 등 접촉기회가 많이 생겨서 좋다고 응답하였고 그 밖에 아이들과 친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점,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누릴 수 있다는 점, 가족 간에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좋고 안부도 쉽게 묻고 알 수 있다는 점, 돌잔치 등 가족행사의 사진과

<표 13>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가 가족관계 전반에 미친 영향

사례	가족에 미친 영향
1	①가족신문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 가 등의 생각 또는 느낀 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범적인 가족의 삶을 제시하게 됨 ②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등을 정하게 되고 가족의 일을 공개함으로써 공개된 가족으로써 투명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됨. ③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 양육의 좋은 수단이 되고 가족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데 가족신문 등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2	아주 긍정적임. 또한 사진등과 같은 앨범을 정리하려 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놀이동산 방문 등을 자주하게 되어 가족의 유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3	가족과 같은 경우 매일 접하기 때문에 안부를 물을 수 없지만 또 다른 세계인 온라인 상에서는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재미있는 비일상 용어(속어)나 인터넷 용어 사용으로 인해 서로 익살스러워지면서 더욱 친해지며 서로 간에 거리감이 없어짐. 그밖에 친척이나 교회 성도들,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운영되므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음.
4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친정 및 여동생하고 가족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돈독해지고 떨어져 살아도 광범위하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음
5	가족 간에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면서 가족이 더욱 화목해진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잘 알 수 있어서 좋다
6	친척들과 사진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주 못만나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안부도 예전보다 자주 물어보게 된다
7	긍정적이고 세대의 공유감이 늘었음.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다들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족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또다른 장이 되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 같음.

함께 소식을 전달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한 고민 공유가 가능한 점 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의 운영이 가족관계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 증대와 친밀감, 유대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가족의 삶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투명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를 운영한 후 부모-자녀들 간의 공통의 관심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면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변하게 됨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 2) 싸이월드 이용사례

최근 인터넷상에서 블로그/미니홈피 이용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싸이월드(개인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열 개의 사례를 조사하여 싸이월드의 개설동기, 싸이월드의 운영이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싸이월드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주로 20~30대이고 직업은 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다섯, 연구원·회사원이 다섯 개의 사례이다. 그리고 한 개의 사례만 기혼이고 나머지 모두 미혼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4 참조).

<표 14> 싸이월드 사례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성별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29	24	22	19	25	34	26	33	31	34
학력	대학원 이상	대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직업	전도사	학생	학생	고등학생	학생	연구원	학생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결혼여부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기혼
가족수	8명	6명	4명	4명	6명	6명	3명	3명	3명	3명

### ① 싸이월드 개설동기

싸이월드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또래 집단, 즉 친구들과의 친목과 연락을 위해 본인들이 개설하였으며 주로 사진을 올린다거나 방명록에 안부나 인사 글을 남기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싸이월드의 구성 내용은 본인의 일상과 재미있는 사진, 관심사 등을 업로드하는 사진첩과 관심 있는 기사나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 재미있는 동영상 올리는 동영상, 다이어리 그리고 방문자가 작성하는 방명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조사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싸이월드 방문 횟수는 보통 3~4회 정도이며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사진 업데이트와 일촌 친구들의 싸이월드에 가서 안부를 묻고 방명록에 답글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② 싸이월드를 통해 연락하는 대상과 연락 내용

싸이월드 개설이 계기가 되어 재연결된 경험은 <사례 1>의 경우 초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찾게 되었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형님하고도 연락하게 되었으며 친척동생들과 고향 친구들과

과 다시 연락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7>은 싸이월드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되어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도 참가하였다고 한다.

싸이월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상대는 가족보다는 멀리 사는 친구나 지인, 애인(이성친구), 직장동료가 많았고 가족 및 친지 중에서 가장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대는 형제·자매와 사촌이 있었다. 즉 싸이월드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대는 가족 보다는 친구나 지인이 많으며 가족 내에서는 부모-자녀 간 보다는 형제-자매 간에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③ 싸이월드 이용 후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싸이월드 이용사례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대화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지간에는 ‘직접 만나서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 간에는 ‘직접 만나서 한다’와 ‘싸이월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사례1>의 경우를 보면 가족이나 친지 간에는 직접 만나려고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를 하게 되나 채팅이나 싸이월드로는 연락을 하지 않는 편이며 친구 간에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경우 직접 만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전화를 이용, 채팅이나 싸이월드, 문자는 다른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려줄 때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싸이월드 개설 후 가족 및 친지, 인간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 가족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가족간에 불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대처하던 방법과 싸이월드를 개설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15 참조). <사례 7>은 가끔 일기장에 이야기를 써서 친구들이 댓글로 위로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가족간의 불화와 같은 민감한 사항까지 싸이월드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사례 8>의 경우 부모님이 싸이월드를 안하시므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싸이월드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가족 간에 좀더 가까워진 것 같고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거 같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족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족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6>의 경우는 늘 만나는 가족이라서 별다르게 가족관계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형제·자매의 싸이월드를 방문해 보고 난 후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깨닫게 되면서 가족들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족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싸이월드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에 대해 <사례 1>의 경우 형님하고 고

<표 15> 싸이월드 개설 후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사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1	가족 중 형님 나와 형님 한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듯 함
2	가족 간에 좀 더 가까워진거 같고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거 같음
4	별다른 영향은 없다
6	가족 간의 생활뿐 아니라 사회에서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나 생활이 어떠한지 알게 되어서 가족간에 미처 몰랐던 점을 알 수 있게 됨
7	가족관계에는 딱히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함
8	친구들과는 달리 친척들에게 원하지 않는 사생활 공개의 우려가 있음 사촌들 간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
9	별영향 없음
10	별영향 없음

항 소식을 전하고 전달 받으면서 형제들 간, 부모님과 더 잘 연락하게 된 것 같다고 하였고 그 밖에 멀리 있는 친척들의 안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점과 가족간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족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 3) 휴대폰 이용사례

#### ① 휴대폰 이용현황

대상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 7-8년 이상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구입한지는 2-3년 되었으며 휴대폰을 한번 구입하면 고장날 때까지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7개이고 보통 4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휴대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통화, 문자보내기, 메모기능, MP3 음악 듣기 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약속을 정하거나 긴급연락, 안부 및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친구와 문자로 대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6> 휴대폰 이용현황

사례	이용기간	휴대폰사용기간	휴대폰 요금	하루통화시간	주로 사용하는 기능
1	7년	4-5년 이상	3-4만원	2-30분 내외	통화, 문자
2	5년	고장날 때까지	2-3만원	30분 내외	통화, 문자
3	5년	1년	10만원	2시간	문자
4	2년	고장날 때까지	3만원	30분	통화, 문자, 이벤트 관리
5	8년	만 2-3년	7-8만원	30분	통화, 문자
6	8년	2년 이상	3-4만원	30분 미만	통화, 문자, 스케줄저장, 메모
7	8년	고장날 때까지	2-3만원	30분 이내	문자, 통화, 메모기능, 알람
8	6년	4년 정도	2-3만원	10분 이하	MP3 기능
9	8년	4-5년 정도	2-3만원	1시간 미만	문자
10	10년	고장 또는 분실	2만원	일정하지 않다	통화(수신)
11	7년	고장날 때까지	2만원	10분	통화
12	10년	고장날 때까지	3만원	20분	통화
13	11년	고장날 때까지	14만원 정도	1시간 반정도	통화, 문자, 은행업무

#### ②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대상과 주요 연락내용

휴대폰으로 가장 오랜 시간 통화하는 상대는 친구나 지인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고 통화내용은 주로 일상사나 안부를 전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인 <사례 5>의 경우 주로 여자친구와 2~3시간 통화한다고 하였고 회사원이나 사업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통화하는 시간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간에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횟수는 하루 평균 2-5회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하루에 1~2회 정도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하는 주요 내용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안부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고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귀가시간을 묻거나 긴급하게 부탁 또는 상의할 내용이라고 응답하였다.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방법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70대 한분을 제외하고 모두 알고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문자보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가족 중 부모님도 문자 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여섯 사례가 응답하였다.

가족 간에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시간,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 간 안부, 위로, 격려의 내용과 소식을 신속하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을 보다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가족 간에 문자메시지 사용 시 단점은 별로 많지 않으나 휴대폰의 문자사용 기능이 제품마다 달라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 ③ 휴대폰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나 갈등 내용으로는 너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꾸중 또는 휴대폰의 소액결제요금이 많이 나와 부담해 주시는 부모님께서 보시고 요금을 내주지 않았던 경우, 휴대폰을 설름 없이 사용하여 부모님께 압수당한 경우, 동생이 애인이나 친구들과의 장시간 통화로 집안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20살 때 부모님께 휴대폰을 사달라고 했다가 바로 거절당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바로 구입한 경우 등이 있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어도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가족 간에 좀더 가까워 진거 같다,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서 좋다, 빠르게 소식을 알게 되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며 통화하지 않아도 문자를 통해서 서로 안부 확인도 가능한 점,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짐, 엄마와 주로 통화하고 아빠와는 가끔 2-3주에 문자 1번 보낸다, 가족간에 직접 대면해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휴대폰 사용을 통해 필요한 용건 등을 쉽게 전달하며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빠른 의사소통(사례12)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왠지 족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가족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좋아진 점이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이지만 대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서로 말로 하지 못했던 사소한 내용도 문자로 대화할 수 있어서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점, 가족간에 대화가 부족한데 문자를 주고 받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점,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편해서 좋지만 사생활의 자유가 예전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부모님께서 지방에 따로 떨어져 살고 계신 <사례 6>의 경우 휴대폰 사용은 부모님과의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즉 휴대폰 통화를 통해 부모님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부모님의 경우 대개 휴대폰이나 인터넷 관련이고, 사례대상자의 경우 요리 방법 등 생활 관련 지혜에 관한 것), 문자 서비스는 부모님과 짧게나마 서로 안부를 묻고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문자서비스는 한번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녀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시고 “내일 엄마 생신이다. 잊지 말고 전화하기 바람.” 혹은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니 운전 조심하길” 등의 문자를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보내기도 하시며 평소에 하기 어려운 말들이나 농담도 문자로 보내주시는 경우 훨씬 감동과 기쁨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안부 등을 자주 물어볼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연락이 가능하여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관계가 더욱 좋아진 것 같다, 늦을 경우 휴대폰도 있으면서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혼나는 빈도가 더욱 많아졌다, 부모님께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좋아하시고 편리해 하신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바로바로 연락 가능, 궁금증 해결 등으로 응답하였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변화 양상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가족성원의 정보화 수준 및 가족의 기능 변화 양상 파악에서는 가족성원의 인터넷 및 휴대폰 접근도, 인지도, 활용도의 수준을 살펴본 다음,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양상 및 기능 변화의 요인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가족집단의 정서적 유대란 가족성원들이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 정서적지지, 심리적 안정감, 친밀감, 유대감 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가족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지치고 피로한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와 안식처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기대와 욕구는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정보화가 가족성원간의 관계에 미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에 정보화를 매개로 다양화된 가족간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 및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향후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조하는 연구 작업에 해당된다.

정보사회는 사회적 정보에 대한 접근 유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적 정보전달 체계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전달체계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박부진, 2001).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신자가 필요에 따라 특정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됨으로써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개인화 경향이 현저하게 강화된다.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생활 및 개인을 연결하는 사회집단의 조직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위상은 산업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족은 더 이상 개별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정보화가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가족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가 증진되었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가족성원간의 소외감이 증가하였고, 통신비 증가로 인한 가족갈등의 심화, 가족구성원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의 감소, 이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보화는 가족관계에 양면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성원간에 대화가 많고 가족집단의 유대감이 강한 가족의 경우에는 정보화의 도입이 보다 많은 양의 정보 공유와 교환을 통해 가족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족문제나 갈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가족성원으로 하여금 가족 이외의 외부집단의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가족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족성원들간의 정보통신 사용은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성원간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빈도가 개인의 컴퓨터나 휴대폰 문자사용 능력의 능숙도보다 가족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보기기의 사용 빈도는 개인의 성별, 가족형태별, 경제수준의 차이는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록 정보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 카페나 가족(개인)홈페이지, 싸이월드, 이메일, 인스턴트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통신을 가족성원간에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족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등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돈독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가사노동 분담에서도 남녀간의 고정적 분업보다는 실제적인 역할의 공유가 실현되고 있어서 역할평등 정도가 더 높았다. 가족성원간의 정보기기 사용은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밀접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간 정보기기 사용이 가족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의 영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한국의 가족형태, 생활, 가족관계 등의 측면은 더욱 분화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보살핌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인터넷 활용에서도 전자우편, 채팅, 동호회 등 대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가족영역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확대 적용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신장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개인은 가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정보기술이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를 평등하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정보화와 미래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보화를 통해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정보화의 긍정적 활용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현재 가족집단 내부의 개인별 정보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의 성별, 세대별, 연령대별로 정보화 수준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실태파악 자료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귀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성원의 개인주의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통신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가족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의 모델을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이메일이나 가족홈페이지·가족카페 등의 전사의사소통 방법이 가족관계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이를 권장하는 홍보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화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초중등교육의 교과과정에서 정보화의 가족관계 내 활용 가능성과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습하도록 하는 교육방법도 고려해 볼만 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기능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교육하는 것이므로 인성교육의 성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등의 사회교육기관에서도 권장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설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화 기술의 활용정도가 가족 내부의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해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의 보다 긍정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미래지향적 전망이 요구된다. 앞으로 20-30년 후, 정보화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기기 사용이 가능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부모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를 예상해 보면, 세대간의 정보격차 현상은 해소되어 문제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고 가족관계에서 정보기기를 매개로 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비중이 대면적인 직접관계보다 큰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족성원들이 정보화기기를 사용하여 일상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개방적 가족집단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상호적으로 친밀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한 가족의 유대를 공유하게 된다면 가족집단의 민주적 관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유연한 안정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무감보다 친밀감에 기초한 연대감이 중심이 된 가족·친족관계가 정착하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수평적 인간관계, 개방성이 보장되는 미래의 가족공동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다원화되는 가운데, 정보화와 가족의 정서적 유대의 증진을 연관시키는 방안의 모색과 보급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김승권 (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2002), 『사이버 시대의 가족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숙재 외 (2003), 『정보화사회에서의 가족과 생활정보』, 시그마프레스.
- 박부진 (1994), "전환기 한국 농촌사회의 가족유형", 『한국문화인류학』, Vol. 26, pp.157-201.
- 박부진 (2000), 「정보문화와 가족생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 학술대회.
- 박부진 (2001), "정보사회의 가족문화", 『여성, 가족생활연구』, Vol.6,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pp. 47-69.
- 박부진, 이해영 (2000),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가족생활의 안정」,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2집 제2호, pp.99-126.
- 서영숙 (1998), 『정보사회와 아세아여성연대-여성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보원.
-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5), 『(개정판)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이종구, 조형제 외 (2005),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 M&B.
- 이재경 (1992), "가정 정보화와 성별분업", 『여성학논집』 제9집, pp.163-191.
- 이해영, 이여봉 (2001), 「이메일 활용과 가족관계」, 『가족과 문화』, 제13집 2호, pp.107-135.
- 이현아 (2000), 「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조정문 외 (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제33호, pp.389-415.
- 조형 (1992), "가부장적 사회의 부부관계의 성격",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pp.19-33.
- 통계청 (2004), 『국민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5),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함인희 (2001),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연구논총』, 제15권, 제1호.



Giddens, Anthony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